

《문조물》에 반영된 리규보의 유물론사상

박 문 성

중세기 유럽에서는 교회의 정신적독재가 횡행하던 암흑의 시기였던것으로 하여 유물론이 철학사상조류로 존재할수도 없었으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방에서는 유물론이 하나의 철학사상조류를 이루고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세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동방에서는 유물론과 변증법적사상이 발전하였습니
다.》(《김정일전집》 제5권 242페이지)

《문조물》에 반영된 리규보의 유물론사상의 기본내용과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중세 유럽에 비한 동방 특히 우리 나라 유물론철학사상의 발전수준을 옳게 인식하고 그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리규보(호는 백운거사, 1168—1241)는 사회계급적모순이 격화되어 농민폭동이 그칠 사이없이 진행되던 복잡다단한 시대에 살면서 부패한 집권통치층의 전횡과 폭압정치를 목격하는 과정에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유물론적관점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문조물(조물과의 문답)》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리규보는 12세기 후반기~13세기 전반기 지배계급안의 진보적인 계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문조물》에서 유물론적인 원기론을 전개하였다.

《문조물》에 반영된 리규보의 유물론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자연세계가 초자연적인 존재의 신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스스로 발생하고 자기스스로 변화(자생자화)한다는 자생자화설이다.

리규보는 천신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것은 무슨 까닭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사람과 만물이 생기는것은 다 혼돈에서 정해져서 스스로 발생하는것이니 하늘도 모르고 조물도 또한 모른다.》(《동국리상국후집》 권11 문조물)라고 하였다.

당시 어지럽고 불평등한 사회형편을 두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미치는 사회적폐단과 질곡의 원인을 알지 못한데로부터 그것이 천신이나 조물주와 같은 알수 없는 신비력에 의하여 초래되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이러한 천신, 조물주의 신비력에 대한 미신신비적관념을 비판하여 리규보는 천신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화와 복을 줄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조화는 《하늘도 모르고 조물도 또한 모른다.》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늘은 무위(무위는 창조능력이 없다는 뜻-필자)하니 마땅히 모를수 있겠지만 만물을 만든다는 조물이야 어찌 모른다고 할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조물주의 입을 빌어 《내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느것을 네가 보았느냐? ...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조물이라고 부르는것조차 모른다.》(우와 같은 글)라고 하면서 천신의 창조능력과 함께 조물주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는 《대체 만물은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변화하는것(자생자화)》(우와 같은 글)이라고 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세계의 존재와 그 변화는 그 어떤 외적, 신비적요인에 의하여 발

생하거나 변화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스스로 발생하고 자기스스로 변화한다는것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초자연적인 인격신에 의한 세계의 창조와 변화를 떠드는 미신신비설을 이론적으로 비판부정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문조물》에 반영된 리규보의 유물론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세계의 시원, 본질에 대한 유물론적인 원기론이다.

리규보는 그 어떤 외적요인이 개입하지 않는 천지만물의 운동변화의 담당자를 원기로 규정하고 원기에 의한 우주생성도식을 제기하였다.

그는 《원기가 처음으로 갈라져 우로는 하늘이 되고 아래로는 땅이 되었으며 사람은 그 가운데서 존재한다. 이것을 삼재(세 뿌여난 존재—필자)라고 말한다. 삼재는 하나와 같다.》(우와 같은 글)라고 하였다.

리규보는 원기를 세계의 시원으로 보고 원기로부터 하늘과 땅,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천지만물이 발생하였다는 우주생성도식을 제기하면서 하늘, 땅, 사람은 물질적인 원기를 시원으로 하여 발생한 존재이기때문에 어느것이 다른것을 낳거나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동격적인 존재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리규보에게 있어서 원기는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있다.

첫째로, 천차만별한 사물현상들의 시원물질 혹은 물질의 시원형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시기부터 자연세계의 시원을 가리키는것으로서 기라는 개념이 설정되었으며 그에 의하여 우주만물의 생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발전하여왔다.

실례로 고대시기에 반영된 《녕품리왕과 몸종과의 대화》에서 자연세계의 공통적본질을 물질적인 《혼돈한 기운》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삼국유사》 권1 기이 제2 고구려, 《론형》 길험편) 삼국시기에 하늘을 담연한 기(맑은 기), 구름이나 노을을 백기, 적기, 사람을 정밀한 기 혹은 지기 등으로 설명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였다.(《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 제2, 권제23 백제본기 제1 다루, 권제18 고구려본기 권6 장수 등)

리규보는 이러한 전통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원기를 시원으로 하여 하늘과 땅, 사람이 발생하였다고 함으로써 천지만물의 시원을 원기로 규정하였다.

둘째로, 공기와 같은 미세한 립자알갱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리규보는 《기가 들어가면 공은 불룩해지나 발길에 채여 쭈그러진다. 기가 다 빠지면 사람들도 흩어지고 공은 어느덧 빈주머니처럼 된다.》(《동국리상국후집》 권6 우견기구인우의)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리규보는 공놀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하면서도 기와 공과의 관계에서 《기가 차면 구체(공)가 되고 기가 빠지면 낭공(빈주머니)이 된다.》는것을 설명함으로써 기를 공기와 같은 기체립자로 리해하고있다.

결론적으로 리규보는 원기를 세계의 시원, 본질로 불뿐아니라 기체와 같은 미세한 알갱이립자로 봄으로써 원기의 물질적성격을 강조하고있다.

리규보가 《문조물》에서 제기한 천신이나 조물주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세계의 운동변화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신비력에 의한것이 아니라 자생자화한다는 견해와 세계의 본질, 시원에 대한 유물론적인 원기론은 당시 철학적세계관발전에서 하나의 혁신으로 된다.

《문조물》에 반영된 리규보의 유물론사상은 14세기 후반기 반불사상과 15—16세기 기일원론적철학사상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였다.

정도전(호는 삼봉, ?-1398)은 고려말기 정치적으로는 급진적개혁파의 한사람으로서 성리학을 이론적기초로 삼고 불교를 비판극복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놀았다. 그는 현실세계의 다양한 사물현상을 《심의 그림자》, 《물거품과 같은 가상》, 《물우에 비낀 달그림자》라고 하는 불교의 허무주의적견해를 반대하면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한 리규보의 론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석가가 죽은 후 지금까지 수천년이 지나갔으나 혼돈한 하늘은 위에서 확연하고 무연한 땅은 아래에서 부드러우며 사람과 만물은 그사이에서 생생하게 자라고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질서정연하게 오고간다. 만일 불가에서 말하는것과 같이 이것을 가상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있을수 있으나 천만세월 오래갈수 없으며 환상이라고 한다면 한사람은 속일수 있으나 천만사람을 믿게 할수는 없다.》(《삼봉집》 권3 불씨잡변)라고 하면서 세계의 객관적실재성을 확신하였다.

정도전이 불교의 허무주의적견해를 반대하고 세계의 객관적실재성을 인정한것은 선행시기 리규보의 《문조물》에서 제기되었던 무신론적견해와 련관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15세기 유물론철학자 김시습(호는 매월당, 1435-1493)은 리규보의 원기론에 기초하여 세계의 시원, 본질을 물질적인 하나의 기로 보는 유물론사상을 제기하고 발전시켰다.

세계관의 성격으로 볼 때 리규보의 원기론은 김시습의 기일원론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김시습은 세계의 시원, 본질은 원기라고 한 리규보의 견해를 발전시켜 일기사상을 내놓았다. 그는 당시 성리학적관념론자들이 세계의 본질을 리에 의하여 설명하는 객관관념론적견해를 반대하면서 《천지사이에 차있는것은 모두 기이다. 우로 해와 달이 오고가는것이 나 더위와 추위, 음과 양이 서로 교체되고 사물현상이 발생하는 모든것은 다 기이다.》(《매월당집》 권2 복기), 《천지사이에 한 기(하나의 기)가 류동할뿐이다.》(《매월당집》 권5 신귀설)라고 하였다.

리규보는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출몰하던 농민폭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원기론으로써 자기의 현실비판적립장을 밝혔다면 김시습은 세조반정에 불만을 품고 일생동안 방랑생활을 하면서 성리학의 정치리념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과정에 세계관문제에서 일기사상으로써 자기의 현실비판적립장을 밝혔다.

리규보가 제기하였던 원기에 의한 우주생성론은 김시습에 의하여 보다 선명하게 구체화되었다. 김시습은 음양이 통일된 하나의 기가 선회운동을 하는 과정에 가볍고 맑은 기는 우로 올라가 모여서 천체를 이루고 무겁고 흐린 기는 아래로 내려와 다양한 사물현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사람과 동물, 산천초목을 비롯한 천지만물이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서로 다른것은 5가지 쌍범주(음양, 경중, 청탁, 수박, 정편)로 표현되는 성질을 가진 기가 각이한 방식으로 결합된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리규보가 《문조물》에서 제기하였던 우주생성론이 김시습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리론적으로 가공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리규보의 자생자화설은 16세기 유물론철학자 서경덕(호는 화담, 1489-1546)에게로 이어져 더욱 발전풍부화되었다.

서경덕은 리규보가 초자연적인 존재의 신비력을 부정하면서 제기하였던 원기의 자생자화에 대한 견해를 긍정하면서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물질세계의 운동에 관

한 변증법적견해를 보다 심화시켰다.

그는 기와 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가 끊임없이 운동변화하는것은 기자체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문득 약동하고 문득 열리니 누가 시키는것인가. 스스로 능히 그렇게 하는것이다.(자능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리규보의 자생자화설을 보다 심화시킨 서경덕의 견해가 반영되어있다. 서경덕에 의하면 기로 이루어진 사물현상의 운동은 자기스스로의 운동일뿐아니라 자기 능력에 의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서경덕은 리규보의 자생자화에 대한 견해를 자능이사상으로 발전시킨데 기초하여 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의 운동변화는 합법칙적인 운동이며(리지시) 운동변화의 원인은 기자체에 내재되어있는 대립물의 호상작용에 의한것(기자이)이라는 기의 자기 운동에 관한 사상을 전개함으로써 기일원론철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리규보의 《문조물》에 반영된 유물론사상은 당시 우리 나라 유물론철학발전을 한걸음 전진시켰으며 그 이후 반불사상과 15-16세기 기일원론철학의 형성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